

‘인간, 사회, 자연의 공생을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 포럼

생태도시 연구집단의 의견합일, “도시도 하나의 생태계다”



● 파주북시티. 인포룸 앞에, 복원된, 한옥살림집...인간문화재. 정영진, 씨가, 대목으로, 참여해, 원형을, 살렸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북시티)가 생태도시의 진면을 드러내며 답사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웰빙wellbeing이 유행하는 세상, 세속적이고 현학적인 관심이 아니다. 도시 난개발로 인한 역기능이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도시 마스터플랜의 전범을 보인 파주북시티를 찾아 기본을 배워보겠다는 성찰의 걸음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파주북시티는 우리 도시, 특히 수도권 개발에 있어 생태도시기획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문화환경공간연구집단 (사)문화우리(대표 임옥상)는 지난 3월 4~5일 양일간 준비된 ‘인간, 사회, 자연의 공생을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 포럼 1일차 프로그램의 하나로 파주북시티를 찾았다. 문화우리는 환경운동가, 사회운동가, 건축 및 도시설계전문가, 예술인 등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21세기 문화환경공간을 연구하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기획하고자 만든 단체. 문화우리 김경식 사무차장은 “새로운 도시환경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있어 환경·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편의중심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수지와 용인을 방문하기 전 파주북시티를 답사하는 것은 문화우리가 지향하는 생태도시에 가장 부합한 도시기 때문”이라며 파주북시티 답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문화우리 포럼에는 문화우리 임옥상 대표를 비롯해 연세대 황상민 교수, 동덕여대 심상용 교수,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김인수 소장, 환경재단 이미경 국장, 인천남구청 도시정비과 김유곤 과장·김복순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을 출발, 파주북시티에 도착한 포럼 참석자들은 ‘인포룸’에 들러 생태도시로서 기능하는 파주북시티 면면을 설명들은 뒤, 입주 출판사와 완공을 앞둔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를 방문, 총 48만 평 부지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생태도시 파주북시티를 둘러보았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는 포럼 발제문 <생태주거 계획기법 연구>에서 생태계획구상에 대한 6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최대한의 자연지형 보존 및 생태계 훼손의 최소화 ▶조각으로 산재되어 있는 녹지를 최대한 연결한 그린네트워크 조성 ▶수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녹지와 연계 ▶중요한 자연자원의 제도

적 또는 인위적 보호대책 마련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경관 및 경관요소의 보전 ▶기존 토지이용구조의 최대한 보전이 그것이다. 이상규 박사의 생태계획 구상에 기대어 보면, 파주북시티는 6가지 사례를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심학산이 배경을 이루는 파주북시티는 기본지형을 최대한 살려 도시설계를 한 것은 기본, 무시로 변하는 천혜의 경관을 공유기 위해 건물의 높이도 최고 15미터로 제한했다. 파주북시티를 관통하는 갈대셋강을 훼손치 않기 위해 기존 복개계획을 뒤엎고 가교를 설치했는가 하면, 낮 동안 축적해 놓은 태양열 에너지로 가동되는 태양열 가로등, 높이 25미터 날개지름 7.13미터의 규모로 1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자연자원 활용에도 모범을 보였다. 가로수도 심학산에 서식하는 참나무와 느릅나무를 심어 주위 생태계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갈대셋강 앞에서 만난 문화우리 임옥상 대표는 "미래도시는 공생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도시계획에 있어 지양해야 할 일인데, 상생의 철학이 담긴 도시로 생태도시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파주북시티 답사 소감을 밝혔다.

파주북시티는 지혜의 도시다. 기능위주로 시간과 공간을 사고하는 합리주의는 없다. '만만디'와 '빈자의 미학'이 파주북시티의 의미를 대표한다. 파주북시티 설계자이자 포럼 발제자로 나선 건축가 승효상 씨는 파주북시티 설계 당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파주북시티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로 자동차 속도도 제한할 것"이란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속도와 행복은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덧붙여 밝힌 '빈자의 미학' 역시 가난한 자의 미학이란 뜻이 아니다. 필요하면 덧대어 짓거나 사유공간을 줄여 공유공간을 늘리는 것처럼, 보존과 공유의 공존에 빈자의 미학 참뜻이 숨어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삶의 반경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공간을 계획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가장 지혜로운 건축 양식의 발현이 빈자의 미학인 셈이다. 승효상 씨는 포럼 발제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를 위한 두 가지 개념의 제안〉에서 도시의 계급화가 우리의 삶을 계급화했다며,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도시의 문제 때문이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그런 의미를 더하자면, 공생의 도시 파주북시티가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주목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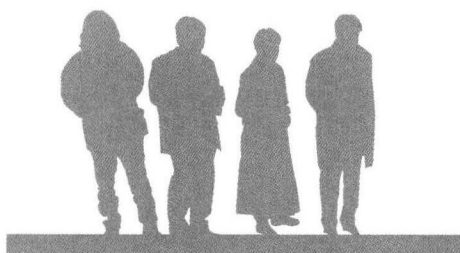
생태도시의 전범을 내보인 파주북시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있다. 보리출판사의 윤은주 씨는 "셔틀버스가 부족해 출퇴



근이 힘듭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함도 많지요. 편리한 도심의 근무지와 자연 속의 근무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실 전자를 택하겠어요. 그래도 이곳의 공기는 서울의 공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으니 잘 적응해야죠"라며 솔직한 대답을 전했다. 전문복합상가와 주택가가 들어서는 1~2년 뒤 대답은 틀리지겠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생태도시의 내실을 길러주어야 할 당면과제와 함께, 파주북시티가 완벽하게 구현된 그때도 '지속가능성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켜가야 함은 파주북시티가 안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지속가능성 생태도시'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태도시센터기획연구위원 이상우 박사는 이번 포럼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및 자급성의 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추구할 때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지속가능성 생태도시"임을 설명했다.

문화우리가 가진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은 ▶자연생태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시공간설계 ▶다양한 문화예술의 욕구 충족 ▶서로서로 관계 맺기를 수월케 하는 도시설계로 요약된다. 문화 우리에게 도시는 하나의 생태계 혹은 유기체인 것이다. 친환경 소재로 건축된 건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갈대셋강을 천천히 걸음한 문화우리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이 난개발의 표본", "헤이리에 들러 모범적인 생태도시를 깊게 보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 합의하며 난개발 도시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전격적으로 변경, 파주북시티 근처 통일동산에 자리한 헤이리로 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한편 문화우리 포럼 참석자들은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로 장소를 옮겨 '생태주거환경 조성방안' 등 모두 11개 주제발표를 가졌다. "사적인 자유와 공유재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를 밝힌 문화우리의 포럼이 도시의 숨통을 시원하게 틱위주기를 기대한다. **한민**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미래도시는 공생사회를 지향해야 한다.....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도시계획에 있어 지양해야 할 일인데, 상생의 철학이 담긴 도시로 생태도시의 대표가 될 만하다.....